

[정답] ⑤

본문 4문단에 의거하면, 귀납논증에서는 “아마도”, “~할 것이다”와 같은 표현이 주로 쓰인다’라고 하였다. 주로 쓰인다는 의미는,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. 즉, 귀납논증일 경우 “아마도”, “~할 것이다”와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,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귀납논증은 아닌 것이다.

(다)의 경우 ‘A 단체의 구성원들은 모두’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므로 A 단체 구성원 중 입헌군주제를 반대하지 않는 구성원은 없다. A 단체 구성원인 갑 역시 그러므로 입헌군주제에 무조건 반대해야만 한다. 즉, (다)는 연역논증이다. (다)의 전제를 항상 참으로 가정하면, 갑은 항상 입헌군주제를 반대한다.

따라서 선지 ⑤번의 진술은 옳지 않다.

- ① 귀납논증이므로 옳은 진술이다.
- ② (가)의 논증은 30년 간, (나)의 논증은 지구 탄생 이후 지금까지 쌓인 자료를 기반으로 논증한 것이므로, (가)가 (나)의 비해 비교적 개연성이 낮다.
- ③ (나)의 논증은 높은 개연성을 띄지만 귀납논증이므로 논리적 필연성을 띄지 않는다.
- ④ (나)의 명제에 과학적 증거 등을 전제로 추가한다면, 결론이 항상 참이 되게 할 수 있다. 즉, 연역논증으로 바꿀 수 있다.